

근대전환기 독서 문화의 전유(專有)에서 공유(共有)로의 전이*

- 국한 혼용본과 문자 생활의 재편을 중심으로 -

이 민 희**

차 례

1. 들어가며
2. 책의 물성과 독서 문화 전이의 문제 설정
3. 문자 생활과 국한 혼용문의 전통
 - 1) 국한혼용문과 문자 생활의 전환
 - 2) 전근대 국한 혼용 전통과 문자 혼용의 계보
4.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의 독서 문화사적 의미
5.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전환기 독서 문화의 변화 양상을 ‘전유에서 공유로의 전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실체를 책의 물질성과 문자 생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 시론적 연구이다. 그동안 근대전환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4-KSS-1120013)

** 강원대학교 교수

기 독서 문화의 변화는 주로 인쇄 매체의 확산과 근대적 출판·유통 구조의 형성이라는 외적 조건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변화가 문자 생활 내부에서 진행된 국한 혼용 표기 관행의 축적 과정과 필사본 매체의 물질적 특성 속에서도 이미 구현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세책 소설과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제책과 장정, 시각적 배열과 같은 물질적 구성 방식이 독자층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국한 혼용문이 갑오개혁 이후 돌발적으로 등장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언해서 간행, 시가집·서간 자료 등 전근대 문자 혼용의 전통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과도기적 문자 체계를 밝혔다. 또한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은 전통적 필사 매체 형식과 문자 혼용의 표기 방식이 결합된 형태 속에서 문자 생활의 변화가 실제 독서 현장에서 전유에서 공유로 이행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실천적 증거임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근대전환기 독서 문화의 전이를 단순한 매체 교체의 결과가 아니라 근대 지식의 형성과 문자 생활의 재편이라는 역학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근대전환기, 독서문화 전이, 국한 혼용 필사본, 문자 생활 재편, 전유에서 공유로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근대전환기¹⁾의 문학 활동(문학사적 전개 양상)을 특별히

1) 본고에서 말하는 ‘근대전환기’는 1876년 개항 이후 외부 문화와 접촉하면서 의식문화, 생활문화, 물질문화, 제도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충돌, 또는 전이, 변용,

‘물질과 지식의 근대적 만남과 재편’이란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위한 시론이다. 근대전환기가 신문물 수용에 함몰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혼효된 상태에서 전통을 계승하며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운동장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이전 시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근대 지식 문화의 실체와 정체성을 고구하려는 것의 다름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현대인이 근대전환기를 바라보던 시선, 곧 우리 것에 대한 무관심, 또는 익숙함에서 오는 무성의한 사회 인식, 과거에 대한 망각, 전통문화에 대한 소극적 인정이 덧씌워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물을 일이다. 서양의 신문화, 신문물 수용에 따른 당대 지식인들의 가치판단이 대체로 전통문화에 대한 몰가치성, 내지 몰주체성이란 형태로 편협하게 표출되었고, 그 평가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의식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소위 전통문화와 근대 문화를 ‘우열-상하-선후’라는 역사관과 문명관으로 이해해 온 시각이 여전히 견고한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양가적 의식이 부딪치고 습합하는 과정에서 실상과는 별개로 무비판적으로 이론화하거나 도식적인 우열 논리로 고착되어 온 것이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본고는 이런 고착적 의식이 강력히 작동해 온 진짜 이유가 ‘외부적 평가의 수용(이식)’보다 오히려 ‘내부적 가치판단의 부재’에 있었다고 본다. 타자(서양 문물, 문화)는 새롭고 우수하고 선진이라는 사고가 강할수록 그 이면엔 우리의 옛것, 전통은 스스로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덜 자극적이고 덜 새롭고 덜 가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가(自家) 인식 태도가 자리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유한 가치를 객관화하고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까닭에

수용의 여파가 커서 근대 사회로의 전환적 특성이 현저히 나타난 시기를 의미한다. 개항 이후 신문화 수용이 가능해지고 대한제국기를 거쳐 이광수의 소설 『무정』(1917), 주요한의 자유시 「불노리」(1919)와 같은 근대문학 작품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 1919년까지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근대전환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챙기지 못한 실재’가 너무 많았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본고가 관심을 두는 것은 근대전환기에 범고하면서 창신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즉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각종 물질 문화의 일단으로 지식 형성과 독서 전변의 산증인이자 물성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이책의 실재 양태와 의미를 고구하고자 한다. 형태와 재료를 통해 지식 문화의 형성과 전변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책 자체뿐 아니라 책을 생산하고 유통시킨 주체들-작가, 출판업자, 독자(향유층), 서적상, 책패 등-과 당대 사회와 문화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종이책의 폭발적 수요와 일반적 사용으로 새롭게 형성된 근대 지식의 내용과 형성 과정의 실체를 기존과 달리 바라보고자 한다.

근대전환기에 산출된 책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닌 일반 독자의 공유물(共有物)로 대중물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여기서 전유 중심의 독서란, 한문 독해 능력을 갖춘 상층 계층의 문자 능력과 지식 체계에 기반하여 텍스트가 비상업적 생산·유통 방식 아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수만이 소장하고 열람하던 독서 행위와 환경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공유 중심의 독서란, 문자 접근성의 확장과 유통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자사용 환경에서 일반 독자 누구나 국문(=국한 혼용문 포함) 위주의 텍스트 향유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 독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독자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자 표기 방식과 책의 물질적 형식, 그리고 유통 방식의 지속과 변용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책의 물질성을 살피려면 책의 형태와 재료, 표기와 표현, 사회에 미친 경제적, 문화적 영향 관계까지 두루 고려해야 한다. 선행 연구²⁾가 일부

2) 노경희, 「고문헌 자료의 형태서지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물질성의 디지털화와 인문학적 해석」, 『한국문화』 제97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451-477쪽 ; 이민희, 「하버드대 소장 국한문혼용 필사본 <정을선전(鄭乙善傳)>의 표기상 특징 연구」, 『어문학』 제159집, 한국어문학회, 2023, 141-178쪽 등.

있지만, 아직까지 물질문화의 일환으로 책의 유통과 독서, 지식 형성 문제를 연계해 살핀 논의는 별반 없다. 이에 본고는 근대전환기에 나타난 변화 중 특별히 문체 변화, 곧 국한 혼용 표기에 의한 문자 생활과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의 등장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펴고자 한다. 여기서 국한 혼용 필사본은 단순한 문자 표기 방식의 변화로 이해되기보다 근대전환기 독서 문화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 주는 중요한 물질적 자료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2. 책의 물성과 독서 문화 전이의 문제 설정

책의 물성, 곧 책의 재료, 형태, 표기는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지만, 객관적 실체 파악을 수월케 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콘텍스트 이해 확장의 원천이 된다. 이와 관련해 매클루언도 “차는 다리의 확장이며,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문자는 시각의 확장”³⁾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미디어라는 물질 매체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을 바꾸거나 전이하는 힘을 가진 테크놀로지라고 정의한 것과 같다.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정보와 지식이 수집, 축적, 편집, 표현되는 일련의 활동이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 세계로 전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전유와 독점의 대상이었던 경서, 종교서에서 공유와 소비 성격이 강한 오락용 독서물, 예컨대, 한글소설책, 일반 교재 등으로 그 중심축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근대전환기에는 종이책에서 시각의 확장을 피하는 문자사용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바로 한문 사용자, 국문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갑오개혁 이후에 공식적으로 국문, 곧 국한 혼용문을 사용하게 된 것이

3) 마셜 매클루언,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다. 그중 국한 혼용 필사본은 인쇄본과 달리 생산 과정 자체가 독서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독서 문화의 물질적 조건을 분석하는 데 소중한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국한 혼용 필사본의 경우 한문과 국문이 동일한 지면 위에 병치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에서 시각적 특성도 생겨난다. 독자가 텍스트에 접근하는 경로를 물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이책과 시각의 확장을 피하는 사용 문자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문자를 담아내는 종이책과 각종 종이 매체가말로 지식 형성과 사회를 이해하는 한 분석 대상로서 적절하다. 방대하고 열정적인 텍스트와 시각적 증거들은 역사적 특별함을 보는 시각, 또는 사회와 시대 지식을 읽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의식(관념)과는 달리, 물성을 지닌 대상(물질태)은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하는 데 인색했다. 그 한 예로 전근대에 출현해 근대전환기에 사라진 세책(貫冊)용 소설책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 소설을 빌려 읽는 문화는 이미 18세기 후반에 서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⁴⁾ 그런데 20세기 초 근대 서점과 도서관, 신식 서적과 신문, 잡지 등 다른 형태의 독서물이 쏟아짐에 따라 기존 독서물인 세책용 소설책과 전통적 소설 향유 문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점차 사라졌다. 익숙함이 무가치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세책 소설 연구자들이 손때 묻고 닳아처럼 훼손되고 육설과 음화가 가득한 소설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⁵⁾ 세책 소설이 지닌 물질적

4) 채제공, 「女四書序」, 『樊巖集』 卷33. ; 이덕무, 『士小節』, 婦儀 1. 등.

5)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엮음,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 이민희, 『조선의 베스트셀러-조선 후기 세책업의 발달과 소설의 유행』, 프로네시스, 2007, 64-70쪽. ; 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 제2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361-396쪽. ;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64집, 민족문화연구원, 2014,

특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세책점에서 취급된 소설책은 세책용 책이라는 특성상 그 형식적, 내용적 특징이 강했다. 많은 사람이 빌려본 까닭에 지저분하고 훼손되면 폐기되기 쉬웠다. 소설책 중 상대가 불량하거나 훼손 정도가 심할수록 상품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다수가 많이 본 인기 소설이었음을 방증한다. 현전 필사본의 물질적, 외적 상대와 형태는 작품의 주제와 연동해 새롭게 물질성의 가치를 재해석할 수 있는 훌륭한 증거다. 책의 형태와 종이의 질, 제본 방식, 각종 재료적 특성과 표기 방식, 필사된 글꼴, 인쇄본 활자의 조판은 시대와 장소에 기초해 당대 향유층과 소설 독서 문화를 재구하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 필사라는 생산 방식 자체가 독자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한 혼용 필사본은 독자가 텍스트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독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현전 최고(最古) 세책본 고소설로 잘 알려진 『남원고사』(1864, 1869)를 필자가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살핀 연구⁶⁾도 본고의 문제의식과 맞

283-309쪽. ; 「세책본 소설 낙서의 수집, 유형 분류, 의미에 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45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147-173쪽. ; 이윤석, 『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등.

6) 이민희, 「<남원고사>의 형태서지학적 특징과 독자층 연구」, 『어문논집』 제104집, 민족어문학회, 2025, 97-127쪽. 이 논문에 의하면, 『남원고사』는 밝은 청색 표지에 능화문(菱花紋)과 만자(卍字) 무늬가 새겨진 최상급 표지 장정을 자랑할 뿐 아니라, 본문 필사에 사용된 종이가 『의궤』나 『실록』 등 왕실, 관청에서 제작할 때 사용하던 두껍고 튼튼한 종이라고 한다. 더욱이 제작을 위해 사용된 실이 3색(빨강, 파랑, 노랑)실이였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일반 하층민 독자를 위해 제작된 세책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별개의 속지를 표지의 안쪽 면과 맞대 풀칠하고 또 다른 본문용 종이를 맞대 풀칠함으로써 표지와 속지를 하나로 연결한 제본도 보인다. 책의 내구성을 높이고, 지저분한 표지 안쪽 면을 가리려는 의도로 최고급 장정과 제본 기술이 사용된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저자는 『남원고사』가 민간의 일반 서민 독자를 위한 세책용 소설책이 아니라, 상층 및 궁중 여성, 그리고 사대부 집안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세책본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궁서 반흘림체를 구사하고 있고, 인용문이나 등장인물 간 대화 부분, 가

닿아 있다. 기존 『남원고사』 연구는 작품론이 주가 되며, 실물을 보고 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파리 BULAC 도서관 소장 유일본인 『남원고사』의 서지적, 형태적, 물질적 특성을 살핀 결과, 이 책은 18세기 후반 이후로 유행한 세책 소설책을 주로 빌려보던 사대부 집안 여성 독자, 또는 궁중 여성 독자를 위한 세책용 소설책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현전 세책본 소설이라면 보관 상태나 책 제본 상태가 불량할 것이고, 낙서와 음화, 육설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졌을 법한데, 실물 『남원고사』가 지닌 물성과 형태를 보고 특정 독자층(소비층)을 한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듯 『남원고사』가 지닌 시대적, 사회적, 이본상 특성을 서지 형태적 측면에서 살핀 결과, 독자층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유에서 공유로 전변해 가기 직전 시기에 소수의 궁녀(사대부가 여성) 독자들이 전유하던, 19세기 중반 소설책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책 문화의 확산은 독서의 향유 주체가 제한된 계층에서 보다 넓은 사회적 범위로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책의 유통 방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생활의 변화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특히 순국문이나 국한 혼용문과 같은 표기 방식의 확산은 기존의 한문 중심 독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층을 포섭하기 위한 문자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세책 문화가 형성한 새로운 독서 환경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 가사, 편지글 등 특정 대목을 들여쓰기 방식으로 필사해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다. 제5책에는 암행어사 출두 직전 양반들 앞에서 이몽룡이 지은 “金樽美酒千人血/玉盤佳肴萬姓膏”라는 한시를 한자가 아닌 한글음(“금준미주는천인혈이오옥반가회는만성고라”)으로 적고, 하단에 시 뜻풀이까지 한글로 부기해 놓았다. 이는 독자가 한시를 직접 읽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들이었음을 의미한다. 고급 장정 및 제본에 더해 편집자적 의식이 투영된 필사본이 지닌 시각적, 물질적 요소는 『남원고사』가 상층의 사대부가 여성, 또는 궁중 여성(왕비, 공주, 궁녀 등)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책이었음을 들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필사본 세책 고소설 『남원고사』를 먼저 언급한 것은 세책 소설 자체를 본고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의 물질적 형식이 독자층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적 검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문자 생활과 국한 혼용문의 전통

1) 국한 혼용문과 문자 생활의 전환

근대전환기에 책과 신문, 잡지, 교재에서 나타난 시각적, 물질적 변화에는 언어 표기방식의 변화, 곧 국한 혼용문 사용이 현저하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한문 사용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국문 사용을 공표했다. 이로써 지배층과 남성 지식인의 전유 서사(書寫) 방식인 순한문에서 누구나 공유 가능한 국문 서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일차적으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갑오개혁 당시 언문일치(言文一致)를 내세우며 강조한 ‘국문’의 실체는 다름 아닌 ‘국한 혼용문’이었다. 한문 문장을 단어 수준의 형태로 나누고 그 형태들을 우리말 문장구조에 따라 재배열한 다음, 거기에 조사나 어미를 첨가한 방식의 글쓰기였다.⁷⁾ 초기 국한 혼용문은 통사적으로는 국문 문장이지만, 형태상으로는 한문투 문장에 더 가까웠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문에 익숙한 지식층과 그렇지 못한 일반 대중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대안적 문체의 성격을 지녔다. 그도 그럴 것이

7) 우선 국한 혼용문의 범위와 개념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한 혼용문을 결정하는 최소 자질은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다는 데 있다. 국문뿐인 글에 한자로 한 단어, 한 구절, 또는 한 문장이 적혔더라도 그것은 국한 혼용문이다. 반대로 한문뿐인 글에 조사, 어미 부분에서 한글로 표기하거나 현토본인 경우에도 국한 혼용문이다. 본문 속에 한글과 한자가 뒤섞여 사용된 경우뿐 아니라 한글(한자) 옆에 한자(한글)로 대응시켜 병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문장 단위 안에서 한문과 국문이 교차하여 배치되는 구성 방식은 단순한 표기상의 혼용이라기보다 독자의 이해 과정을 보조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문자 생활의 변화가 텍스트의 물질적 구성 방식 속에서 구현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다가 한문투 문장을 점차 자립적인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뀌어 사용하게 되자, 조금씩 국주한중(國主漢從) 형태의 문장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⁸⁾ 오늘날의 국문 문장의 원형으로 국문 혼용문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종교적인 글과 문학, 그리고 신문과 잡지, 각종 교육용 교재에서 국한 혼용문이 널리 사용되면서 글쓰기의 주류가 되었다. 그 결과 순한문 사용과 비교해 큰 폭으로 문해력과 지식 전달 매체, 독자층의 증가를 견인했다.

국한 혼용문은 국한 한문 독해 능력을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국문을 통해 의미 접근의 경로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 생활의 이중 구조를 반영한다. 이는 전통적인 한문 중심 지식 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다 넓은 독자층을 포섭하려는 과도기적 문자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국한 혼용의 개념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국한 혼용문을 세분화해 설명한 기존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이창현은 국한 혼용문을, ①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것(國漢文混用文), ② 한글과 한자를 병기 표기한 것(國漢字併記文), ③ 한자(한글)를 주(主)로 사용하고 한글(한문)을 종(從)으로 사용한 것(漢文/國文懸吐文)으로 나누었다.⁹⁾ 국한 혼용을 ‘혼용’과 ‘병기’로 나누고, 한글과 한자 중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표기

8) 김주필, 「19세기 말 국한문의 성격과 의미」, 『진단학보』 제103집, 진단학회, 2007, 193-218쪽.

9) 이창현, 『이야기 책 이야기』, 보고서, 2003. ; 『이야기 문학 연구』, 보고서, 2005. ; 「한국 고전소설의 표기 형식과 유통 방식」,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들베개, 2005, 227쪽.

한 것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런 구분에 더해 본고는 ‘④ 언해(諺解)’도 국한 혼용문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언해’는 목표 언어만 사용해 전달하는 ‘번역(翻譯)’과 달리, 원문(한문)과 번역문(국문)을 나눠 제시하기 때문이다. 한문에 조사와 어미 부분을 한글 음으로 토를 다는 ‘현토(懸吐)’까지도 넓은 의미의 ‘언해’다. 어미, 조사뿐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한글을 사용해 표기한 것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사이트 마레시 역시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국한 혼용문을 문체적 범주와 개념적 범주로 나눠 설명했다.¹⁰⁾ 문체적 범주에서의 국한 혼용문은 국민의 문체, 즉 말과 문장을 똑같이 표현하는 문체를 의미한다. 반면 개념적 범주에서의 국한 혼용문은 한문의 번역어, 즉 한문 번역 혼독문이다. 후자는 바로 언해문까지 포함될 수 있다. 국한 혼용문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새롭게 나타난 제3의 표기법이라 할 만하다.

언해는 그 종류가 여럿이다. 어순에 따라 조사와 어미에 토를 달거나 한문과 한글 번역문을 동시에 병기한 것이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조선 중후기에 관공서에서 출판한 각종 교리서나 실용서, 즉, 『삼강행실도언해』, 『금강경언해』, 『구급방언해』 등 민간에서 필요한 계몽서, 교화서 등에 혼독, 또는 국한 혼용 표기 낭송용 텍스트가 이에 해당한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일상에서 사소한 메모나 목록, 잡서 등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런 국한 혼용의 원천은 애당초 문어와 구어 사용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비록 통사적 구조는 다르더라도, 한자와 한글을 섞어 변용시킨 문체를 창안한 것이다. 그 하나가 한문에 토를 달아 한문과 한글을 섞어 쓰는 구결 혼용체였고, 다른 하나가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을 섞어 언해한 혼용체이다.¹¹⁾ 또한 우리말

10) 사이트 마레시, 황호덕·임상석·류충희 역,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현실문화, 2010, 13쪽.

11) 서강선, 「번역과 문체의 습합 및 변용」, 『우리말글』 제56집, 우리말글학회,

노래, 즉 한자어와 우리말 표현을 한글로 섞어 쓴 구어 혼용체도 있다. 이 세 가지 변용 문체가 창작의 문체가 되어 근대에 국한 혼용문체로 나타난 것이다. 낭송 문화가 일반적인 가운데 자국어 구어를, 음성(우리말)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형태의 시가집도 국한 혼용문의 하나로 당당히 포함해 마땅하다. 이처럼 국한 혼용의 범위와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문학사에서 국한 혼용문의 기원과 발달을 보는 시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한 혼용문(체) 사용 기원을 갑오개혁에서부터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갑오개혁 당시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원래 법률과 칙령에 한해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국한 혼용문만이 각종 공식 문서와 글쓰기 현실에 반영되었다.¹²⁾ 이 과정에서 ‘국문(國文)’ 개념이 널리 확산되었고, 국문은 언어인 ‘국어’와 글자로서의 ‘문자’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국한 혼용문이 곧 국문이 된 것이다.

한 가지, 문제적인 것은 공식 문서에 사용된 ‘국문’, 즉 국한 혼용이 실은 일본의 국한혼용체 문장 사용 정책에 영향을 받아 실시된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일제는 19세기 말부터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교육수단 명목으로 국한 혼용체 사용을 장려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1890년대부터 1910년까지 정책적으로 국한 혼용체 사용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때 조선어 연습이나 조선의 교육에 관심이 있던 일본의 지식인과 관료들이 국한 혼용체 사용을 갑오개혁과 연계해 확장시키려 했다고 보는 것이다.¹³⁾

2012, 48쪽.

12) 송민,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자국어와 자국 문자」, 『한국학연구』 제30집, 한국학연구소, 2013, 22쪽.

13) 전민호, 「개화기 교육수단으로서의 국문 및 국한문혼용 정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34권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2, 99-121쪽.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메이지 시대에 유명한 계몽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4~1901]와 그의 제자로서 조선에서 활동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1860~1939], 그리고 게이오 대학[慶應義塾]에서 후쿠자와로부터 교육을 받은 유길준(俞吉濬, 1856~1914)이 관보(官報)인 『한성주보』(1886) 발행 과정에서 문체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중매체의 성격이 강한 신문에 국한 혼용 문체를 적용한 것을 그 효시로 본다. 언어에 따른 분열을 넘어서 국민을 하나의 언어공동체로 묶고, 일반인에게 전달이 잘 되는 문장을 쓰자고 주장한 유키치와 제자 가쿠고로와 유길준, 그리고 박문국 총재였던 김윤식 등이 뜻을 모아 어려운 한문 대신 국문을 신문에 사용하고자 국한 혼용 문체를 선보였다는 것이다. 근대전환기에 일본 영향 아래 국한혼용체를 처음 사용했음을 강조하며 이에 의미를 두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근대부터 근대전환기까지 나타난 일련의 글쓰기 전통과 문체 사용 문제를 통시적으로 살피지 못한 결과다. 국한 혼용문이 일본 계몽 교육 적용을 위해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내재적 발전과 계승의 산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한 혼용문이 근대전환기에 비로소 등장한 것으로 보는 기존 관점과 달리, 내부적 전통 계승에 더해 외부적 영향 아래 글쓰기 방식이 전유가 아닌, 공유로 전변되어 왔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국한 혼용 표기 시도는 정부, 또는 왕이 백성 교화와 계몽,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전근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문체를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법제화했을 뿐이다.

전근대에 각종 언해서, 문학서(시가집), 서간(편지)¹⁴ 등에서 국한혼

14) 조선 역관 8인이 국한 혼용으로 작성한 서간문 86건과 일본인 통사인 小田幾五郎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편의 국한 혼용문 글이 그 좋은 예이다. (황문환,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제10집, 국어사학회, 2010, 73-131쪽.; 정승혜, 「朝鮮通事가 남긴 대마도의 한글 편지에 대하여」, 『어문논집』 제65집, 민족어문학회, 2012, 219-250쪽 등.)

용체가 거듭 사용되어 온 것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하에서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2) 전근대 국한 혼용 전통과 문자 혼용의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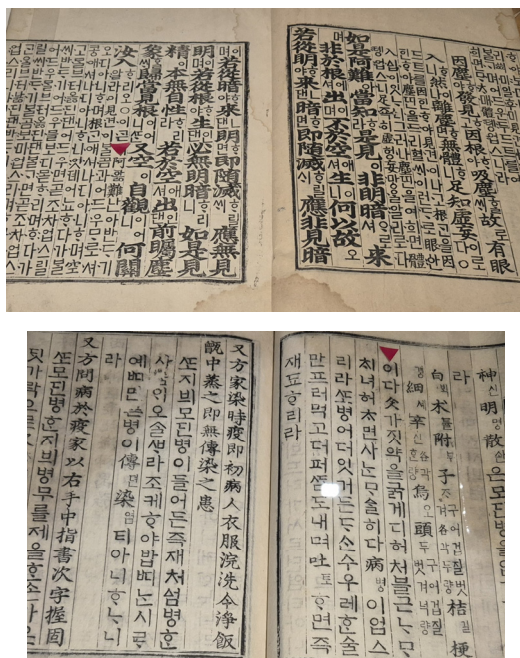
가) 언해서 간행과 향유

국한 혼용문은 순한문 독서층과 순국문 독서층 사이에 위치한 중간 독자층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러한 독자층의 형성은 독서 문화가 전유 중심의 구조에서 공유 중심의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한문을 우리말처럼 읽고 표기하기 위한 시도는 일찍이 향찰과 이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세기에 제작된 불교 경전인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권66)에서 이미 점과 선을 사용해 우리말 조사와 어미를 표시한 흔적이 보인다.¹⁵⁾

그런데 한문과 국문을 활용해 지식의 독점을 분산하고 그 영향을 넓힐 수 있는 언해서 간행을 주도한 것은 실은 국가였다. 세조 대에 간경도감(刊經都監)을 만들어 불교 서적 간행과 불경 언해서를 편찬한 것이 근대전환기에 언문일치 정책을 실시한 것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다.

15) 이 경전은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조사와 어미를 점과 선의 형태로 표현한 자료다. 동물의 뼈나 나무 등을 깎아 만든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종이를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구결을 새겼다. 글자 주변에 점, 사선, 곡선 등의 부호를 달리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한 혼용문을 통해 한문 지식과 우리말 문장 표현을 하고자 한 문제의식과 유사한 이른 시기의 표기 방식 중 하나였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결을 붙여 읽으면,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한문에 우리말 조사, 어미 등을 구결을 섞어 쓴 것이 한주 국중 현토 표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사진1] (상) 『능엄경언해』(1462). 한문은 한글로 조사와 어미 부분에 토를 달고, 번역문은 한글로 적되 한자의 경우 음을 한글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판각했다. / (하) 『간이벽은방언해』(1578) 한글박물관 소장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1462) 제10권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언해서 간행 이유와 과정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한글로 된 불경을 간행하여 백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 시키고 불교의 교리를 널리 알리는 데 있었다. 한문 원문에 한글 토를 달고 본문을 한글로 번역한 뒤, 여러 사람이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 한자의 발음을 적고 여러 번 번역문을 다듬는 공정을 거쳤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번역문이 확정된 후에 소리 내어 읽는 과정을 거쳐 번역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즉, ‘한문 원문→한글 토 삼입→한글 번역→한글로 한자 음 적기→번역문 수정→우리말 낭송’ 과정을 거친 것이다.¹⁶⁾ 번역한 글이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번역문을

여러 차례 수정했고 수차례 소리 내어 읽는 방식을 취해 구어체 문장을 적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이는 갑오개혁 당시 우리말 표현과 어순에 맞게 하기 위해 언문일치를 시도한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즉, 언해 간행을 위한 문제의식과 표기 방법과 목적의식 모두가 현대식 국한 혼용문의 사용 취지와 방불하다. 이때가 훈민정음 반포(1446) 이후 1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한문을 한글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 번역에 관심을 가졌고, 한자와 한글의 혼용 가능성을 훈민정음 사용 초기부터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찍이 1548년에 강화도 마니산 정수사에서 각판한 『십현담요해언해』과 최근 발견된 필사본 『십현다요해언해』에 사용된 국한혼용 표기도 주목을 요한다.¹⁷⁾ 아래 인용은 『십현담요해언해』(목판본 백련암본)의 맨 마지막 장이다.

縱橫은 世間에 理事와 曲直^{ᄃᆞ}며 逆順^{ᄃᆞ} 境界 縱橫世間에 理와 事와
주브며 바르며 어려오며 도^{ᄃᆞ} 境界 | 나라 (띄어쓰기-인용자)

조사와 어미뿐 아니라 용언 부분을 한글로 적었고, 우리말 부분을 구어체 어순으로 풀어 쓴 국한혼용문이다. 국한혼용 표기라 해도 한문투 표현과 문장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이런 국한혼용문은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은 아니다. 그런데 관청이나 개인이 아니라 절에서 국한 혼용 표기 목판을 만든 이유는 이 언해본을 읽을 대상이 여전히 한문 소양과 지식이 있고 불심이 도타운 상층인일 뿐 아니라, 한글 사용이 가능하고 불심 깊은 왕과 사대부 집안 여성을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이라 적은 것이 결정적인 단

16) 김무봉, 「조선시대의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 2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383-384쪽.

17) 정은영, 「새 자료 필사본 <십현담요해(언해)>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56집, 구결학회, 2026, 280-284쪽.

서가 된다. 불교를 후원하고 불심까지 돈독했던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가 독자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한 혼용 표기는 특별히 왕비를 비롯해 공주, 궁중의 여성을 위한 배려에서 이뤄진 것이 많았다. 상층 남성 이외에 교양 있는 지식인 독자, 곧 상층 여성과 궁중 여성을 고려해 국문과 한문을 섞어 표기하는 방법이 거듭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언해서 중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1578)는 종종 때 평안도에 열병이 크게 유행하자 이를 민간에서 간단하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과 소용되는 약,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적은 응급의학서이다. 이 언해서는 전염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을 번역한 것이다. 민간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라가 주도해 언해 형태로 간행한 것이다.

서문을 보면, 서울과 지방 각지에 널리 퍼 사람마다 쉽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글로 번역한다고 했다. “병이 傳던染염티 아니흐느니” 처럼 번역문 중간에 한자어는 한자를 먼저 쓰고 그 뒤에 한글로 음을 병기했다. 최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중상층 남녀 문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애민 정치의 일환으로 의학 지식 확산을 위해 언해서를 간행한 것이다.

『무예제보언해(武藝諸譜諺解)』(1598)도 마찬가지다.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의 사용법과 제조법을 한글로 풀어 쓴 우리나라 최초의 무예서는 국문 위주의 문장에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섯 가지 무기를 다루는 무예와 무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하면서 한문과 우리말 풀이를 번갈아 제시했다. 이것은 한문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일반 병사와 하급 장교, 무기 제조자 등에게 무예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사진2] (상) 『화포식언해』(1635) / (하) 『무예제보언해』(1714) 재간본. 한글박물관 소장본

1635년에 간행한 『화포식(火砲式)언해』는 각종 화포와 화약 사용법을 모은 책이다. 서양식 청동 화포인 ‘불랑기(佛狼機)’에 대해 “부리에 브드시 들 연즈”(=입구에 겨우 들어갈 납탄, 인용자 주) 한 개씩을 쓰라고 설명해 놓았다. 이서(李曙, 1580-1637)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 전란을 겪은 후 무기 개량과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편찬한 이런 병서를 언해본으로 간행한 이유 역시 자명하다. 화포와 화약을 직접 다루는 병사,

또는 하급 장교를 주 독자로 삼았기에 국한 혼용 표기를 사용해 책을 펴낸 것이다. 실무적 지침서에 해당하는 책을 이처럼 언해한 것은 언해서가 기본적으로 왕과 상층 관료직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닌, 비한문 사용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유’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언해서 중에는 교육용 교재도 적지 않았다. 국한 혼용체가 교화와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 적용된 사례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에 간행된 『소학언해』는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소학』을 우리말로 번역해 한글로 쓴 책이다. 『소학언해』는 한문 원문도 매 한자 다음에 한글 음을 병기하고, 조사와 어미도 한글로 적었다.^① 따라서 학습자들이 『소학』 한문 원문을 쉽게 토를 달아가며 읽을 수 있었다. 독음을 쉽게 하고 한자 음을 알 수 있도록 국한 혼용 표기를 시도한 것이다.

① 其기道도는必필本本於어人인倫륵하야明명영乎호物물理리하고其기敎교
는自즈小소學학혹灑새掃소應응對대이以往왕으로

② 그 道도는 반드시 人인倫륵이 근본하야 物물의 리리를 밝히고 그 ㄱ
르침은 小소學학혹엿 물썰이고 뜰며 應응하며 對對함으로 본터 씌 감
으로 (떠어쓰기-인용자)

②는 ①를 국한 혼용 표기를 유지해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한자만 빼서 읽으면 “그 도는 반드시 인륵이 근본하여 물의 이치를 밝히고 그 가르침은 소학에 물 뿌리고 쓸며 응하며 대함으로부터 써 감으로”라는 우리말 문장이 된다. 여전히 문어적 표현이 있지만, 오늘날 현대식 국한 혼용문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상거가 멀지 않다.

이처럼 국가 주도로 간행된 여러 분야의 언해서는 지배층 남성만을 위한 전유적 독서물인 한문본과는 거리가 있었다. 언해서를 읽은 이들은 궁중 여성과 사대부 집안의 여성,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던 중하층

남성들이었다.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계몽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 국한 혼용 언해서를 내놓은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근대적 국한 혼용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부터가 정작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기 위해 국내 경서 언해서 표기 방법을 참고했다고 직접 밝혔다는 데 있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我文과 漢字를 混用”하고 “我邦七書諺解의 法을 大略 效則하야 詳明”¹⁸⁾한다고 했다.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기 위해 국내 경서 언해서에 사용된 방법을 참고했다고 밝힌 사실이 소중하다. 이상의 언해 간행만 보더라도 근대전환기 국한 혼용문이 전통을 계승한 결과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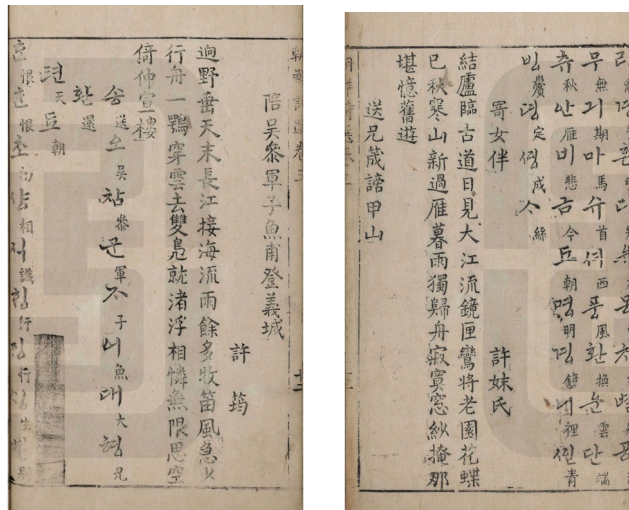
나) 문학서(시가집) 사용 국한 혼용(병기)의 실제

국한 혼용 표기가 구현된 또 다른 예를 여러 문학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문보다 우리말 노래를 적은 시가에서 더 자주 보인다.¹⁹⁾

국한 혼용 표기가 보이는 작품 중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시선(朝鮮詩選)』(1598)에 수록된 허균의 시를 들 수 있다.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 왔던 명나라 문인 오명제(吳明濟)가 조선의 한시 200편을 모아 내놓은 시선집이 『조선시선』이다. 여기에 허균의 한시 10수가 실렸는데, 그 중 허균이 오명제를 배웅하면서 써 준 「송送오뫼참삼군軍즈子서魚되大 형兄환還턴天도朝」란 시 제목이 국한 병기되어 있는 것이다.([사진3]) 한자 앞에 한글을 앞세워 혼용하고 받침음 ‘ㄷ’까지 사용해 구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8) 한영균, 『현대 한국어 형성기의 새 국한혼용문의 등장과 그 변전』, 소명출판, 2023, 162쪽 재인용.

19) 염불공덕(念佛功德)을 주제로 한 설화(소설)인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은 한문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 옆에 국문 번역문을 병기한 형태의 언해서이다. 중간에 한문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단 부분도 보인다.



[사진3] 오명제 편, 『조선시선』(159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 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명제가 중국에 갔다가 다시 조선에 와 줄 것을 바라는 허균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를 받은 오명제가 중국에서 『조선시선』을 펴낼 때, 한글 표기를 그대로 살려 목판에 새겨 간행했다는 점이다. 오명제가 1600년에, 그것도 조선이 아닌 중국에서 『조선시선』(전 7권2책)을 간행했는데, 이때 한글 표기까지 그대로 살려 판각한 것이다.²⁰⁾ 한글 음을 먼저 적고 한자를 이어 제시했는데, 조선 관련 중국 서적에서 이런 식으로 간행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²¹⁾

20) 허경진, 『허균 평전』, 돌베개, 2002, 143-146쪽. 이후 명나라 문인 전겸익(錢謙益)도 『열조시집(列朝詩集)』을 낼 때, 오명제의 『조선시선』을 참고해 ‘조선’ 편을 엮었다. 중국에서 이미 간행된 『조선시선』과 『열조시집』은 이후 조선에 다수 유입되어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한치윤(韓致堧, 1765-1814)이 『해동역사(海東譯史)』를 지을 때 전겸익의 『열조시집』을 참고했는데, 그때도 한치윤이 허균의 한글 시를 당시 철자법에 맞게 바꿔 수록했다. 소위 국주한중(國主漢從) 표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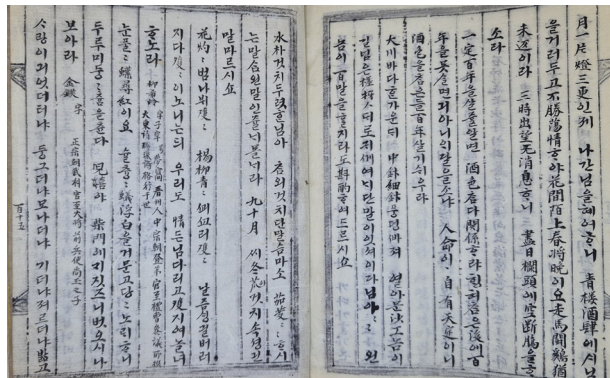
21) 박현규, 『중국 명말 청초인 조선시선집 연구』, 태학사, 1998, 70쪽.

그렇다면 허균은 오명제에게 써 준 한시 제목을 왜 국한 혼용으로 표기한 것일까? 그것도 매(每) 글자마다 한글 음을 먼저 적고 한자를 붙여 쓰는 방식을 사용했다. 아직 아무도 그 이유를 해명한 적이 없지만, 필자는 오명제가 조선시를 모으면서 조선어를 익히거나 언문 읽는 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명제가 조선인들이 한시를 어떻게 읽는지(낭송하는지) 알고 싶어해 허균에게 물어보았고, 한자의 한글 음에 관심이 있던 오명제를 위해 허균이 일부러 한자음을 한글로 써서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외국인 중에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이유에서 한자와 한글을 병기해 적는 방식을 사용한 예를 후대에도 여럿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한 혼용 표기를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 노래를 필사한 가집, 또는 시조집이다. 김천택이 편찬한 최초의 시조집인 『청구영언』(1728)부터가 개인 문집에 실려 있었거나 구전되던 가곡, 곧 시조 노랫말 580수를 국주 한종(國主漢從)의 혼용 방식으로 필사되었다. 김천택은 “한때 입에서 불리고 자연히 사라져 후세에 연기처럼 없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노랫말을 한데 모으고, 구전되던 노랫말 중 틀린 내용을 바로잡고자 기록했다고 발문에서 밝혔다. 우리말 노래를 자연스럽게 말글 형태로 적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 한자어와 우리말을 구별해 표기한 것이다. 한자 소양이 있던 시조 가객들은 우리말 노래를 구어체로 적기 위해 의미를 분명히 살리기 위해 한자를 적고, 표현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언문을 혼효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한문만을 사용하던 양반도, 한글 사용만 가능했던 일부 평민도 아닌 중인이었기에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표기 방식이었다. 신분에 따른 자기 정체성과 교양 정도, 그리고 우리말 노래의 가치를 고려해 한자어는 한자로 적고, 우리말 표현은 한글로 적는 이중 언어 사용 전략을 적절히 구사한 것이다.

이런 국주 한종 혼용 표기 필사 전통은 후대 시조집인 『해동가요』

(1763), 『가곡원류』(1876)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시조와 가사, 판소리 등 우리말 노래를 구어 문장으로 적고자 할 때, 중인 식자층을 중심으로 국한 혼용 표기가 거듭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4] (상) 『청구영언』(1728) 한글박물관 소장본 / (하) 『가곡원류』 파리 BULAC 도서관 소장본

긴 분량의 가사 중에 서사성이 강한 작품은 소설화도 가능했다.²²⁾ 여

22) 예컨대, 가사체 『춘향전』가 발굴되었는데, 국문과 한자, 그리고 이두를 뒤섞어 사용한 국한이자혼용법(國漢吏字混用法)이 사용되었다. 구사회 외, 「새로 발굴한 가사체 <춘향전>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제34집, 동양고전학회, 2009, 393쪽.

러 가집에 사용된 혼용 표기를 구어체 성향의 국문소설 필사 시 적용할 여지 또한 충분했다. 그렇기에 20세기 초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 작품이 다수 등장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1798년 조선의 역관들이 대마도 통사(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에게 보낸 100여 통의 편지는 모두 국한문체로 적혀 있다.²³⁾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에다 일본어 조사, 어미를 히라카나로 섞어 사용하는 일본어 텍스트에서도 소위 국한혼용 표기가 언문일치를 위한 방식으로 효과적이었다. 일본인 역관이 국문소설을 필사하고자 한다면, 의미 파악과 정확한 내용 이해를 위해 일부러 국문 어휘를 한자로 혼용, 또는 병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처럼 근대전환기에 언문일치를 위해 사용한 국한혼용 표기가 근대 이전에 이미 다양한 방식과 목적을 갖고 광범위하게 실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말 문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국한 혼용 표기가 18세기를 거쳐 근대전환기까지 계속 사용되어 온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한 혼용 표기를 시도한 저의(底意)는 기본적으로 백성(언중)을 향한 교육과 계몽에 있었다. 이는 일본 지식인이 내세운, 조선인을 위한 근대 계몽과 상관없이, 전근대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백성 교화와 계몽을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한 혼용 표기를 이용한 언해서 간행을 국가가 주도한 것이 한 증좌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일제가 국한 혼용체 사용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민족’ 의식 형성을 의도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국한 혼용문은 특정 시기에 정치 논리에 의해 갑작스럽게 형성된 문자 체계가 아니다. 국한 혼용 표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외부적으로 일본 문체의 영향이 일부 더해진 가운데 근대전환기에 국한혼용체가 정착되고 확산되어 간 것이다. 여러 문자사용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축

23) 박천홍, 『활자와 근대』, 너머북스, 2018, 342쪽.

적되어 온 문자 생활의 관행이 제도화되는 과정의 일환에서 마련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의 독서 문화사적 의미

국한 혼용문(체)는 근대적 지식의 형성과 재편이라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발명된 표기 방식이 아니었다. 다만 국한 혼용문은 근대전환기에 서양 문명과 근대 지식이 주로 일본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서양 문헌 번역 과정에서 높은 추상도의 개념어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요청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한 혼용체가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이와 관련해 본고는 전대와 비교해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이 대거 등장한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은 전대의 문학적·언어적 전통을 계승한 텍스트이면서 순한문과 순국문 사용자와 결을 조금 달리 하는, 생활문자 사용 감각을 가진 이들이 향유한 독서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문학 텍스트는 지식 전달 텍스트와 달리, 실제 독서 실천이 가능한 향유 텍스트로서 적합하다. 문학이야말로 문자 생활의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이 근대전환기에 다수 출현한 것은 문자 생활의 전환이 실제 독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 자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한영균·유춘동²⁴⁾이 언급한 16종과 개별 연구자가 각

24) 한영균·유춘동, 「고소설의 서사 방식 변화와 필사 시기 추정의 상관성에 대한 시론」, 『열상고전연구』 제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620쪽.

론 차원에서 소개한 것이 전부다. 일차적으로 현존 고소설 이본 중 국한 혼용 필사본의 수가 매우 적은 데다 고소설이 쇠퇴하던 20세기 초에 뒤늦게 등장했다고 보고, 소설사에서 순국문본이나 한문본의 아류, 또는 변방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인식되어 온 탓이 크다.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은 1900년대부터 보이기 시작해 1910년 이후에 뒤늦게 나타난 이본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기 규정은 문자 생활의 축적 과정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존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 작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총량과 실태부터 파악할 경우, 기존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필자가 개인적으로 실물을 확인한 국한혼용 필사본만 해도 89종 176편에 이른다.²⁵⁾ 이 정도 분량이라면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을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부응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현존하는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이 과연 갑오개혁 이후 국한혼용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후에 그 영향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앞서 살핀 것처럼, 이전 시기부터 국한 혼용체 사용을 계승한 결과물인지 판단하는 일이다. 국한 혼용문은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의 출현과 작품 세계 및 향유층을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중적 독서물로 자리 잡은 이야기책(소설책)이 국한 혼용으로 필사되고 향유되었다는 것은 일상에서 소통이 가능한 구어체 문장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증한다. 이때,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을 필사하고 향유한 이들을 새로운 소설 독자층으로 볼 지, 아니면 기존 소설 독자층의 확

25) 국내외 도서관 및 각종 유관기관 소장본, 영인본, 개인 소장본 등을 일일이 찾아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 목록을 작성 중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후속 연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필사본뿐 아니라 활자본, 일부 판각본과의 관계까지 포함해 국한 혼용(병기) 표기 고소설이 지닌 이본상의 특징과 이본 총량, 향유층과 작품 세계의 특질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로 볼 지도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주류는 아니더라도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의 존재가 신문 연재소설, 국한 혼용 활자본 출판 발달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근대전환기 국한 혼용 표기 사용과 독자층, 향유 매체와 관련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유경민은 『신약전서 국한문(新約典書國漢文)』(1906)을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시작으로 보았다.²⁶⁾ 한문에 능통한 지식인들이 순한글본만으로는 오히려 성경 이해가 어렵다고 보아 선교 목적으로 한자와 한글 혼용 성경을 만든 것이 효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 구어적 표현을 국한 혼용(또는 병기) 표기한 필사본 고소설이 그 이전부터 확실히 존재하는 바, 이런 주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최초의 한문 현토소설로 평가받는 『신단공안(神斷公案)』이 1906년 『황성신문』에 국한 혼용 형태로 190회 연재되었다.²⁷⁾ 이때 『신단공안』에 사용된 국한혼용문은 한문 원문에 토를 붙인 일반적인 구결문과는 다른 것이었다. 한문 어순을 국어 어순으로 바꾼 부분이 섞여 있거나 한문 접속사를 국어 조사로 바꾸기도 하고, 한문의 허사(虛辭) 대신 국어 어미를 사용하는 등 국어 문법적 요소가 다수 반영된 글의 모습을 지녔다.²⁸⁾

그런가 하면 「일념홍(一捻紅)」, 「용함옥(龍含玉)」 등이 출판된 이후, 순한글 고소설을 국한 혼용 소설로 개작한 작품이 1910년대부터 구활자본으로 출간되었다.²⁹⁾ 그리고 1906년에 신소설 「혈의누」가 처음 신문

26) 유경민, 「국한 혼용문 성경의 정착 과정」, 『국어사연구』 제13집, 국어사학회, 2011, 267-305쪽. ; 「국한 혼용문 성경과 현대 한국어 문체의 상관성」, 『반교어문연구』 제38집, 반교어문학회, 2014, 163-194쪽.

27) 박소현, 「과도기의 형식과 근대성-근대계몽기 신문연재소설 <신단공안>과 형식의 계보학」, 『중국문학』 제63집, 125-147쪽;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현토소설의 존재방식-신문연재소설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제24집, 183-208쪽.

28) 한영균, 「근대계몽기 국한 혼용문의 유형, 문체 특성, 사용 양상」, 『구결연구』 제30집, 구결학회, 2013, 229-230쪽.

에 연재되었다. 이처럼 1906년에 이르러 『신단공안』류 이야기와 신소설 「혈의누」가 신문에 연재되고 『신약전서 국한문(新約典書國漢文)』와 같은 국한 혼용 표기 성경책이 등장한 이후, 그 영향 아래 1910년경부터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이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었다.³⁰⁾

하지만 1910년 이전에도 엄연히 국한 혼용 고소설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예컨대, 단국대 울곡도서관소장 『주공추전』(주봉전, 乙丑三月 景福宮創建時=1865), 한글박물관 소장 『진시효열록』(光緒八年=1880), 서울대 소장 『鼈兎歌』(丁亥=188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陳聖運傳』(上章 攝提格=189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화용도』(己亥=1899) 등에 적힌 필사기만 보아도 1900년대 이전에도 국한 혼용 필사본이 다수 존재했던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관들이 필사한 고소설도 있다. 대마도 통역관이던 오다 이쿠고로[小田巖五郎]가 『별숙향전(別淑香傳)』(1793)을 필사한 것을 필두로 교토대 소장본 『숙향전』(弘化三年=1846), 나카무라 쇼지로[中村庄次郎]가 필사한 교토대 소장 『최충전』(明治六年=1873), 그리고 일본인 군통역관인 하시모토 쇼요시[橋本彰美](=고이즈미 데이조[小泉貞造])가 1894년에 부산 왜관에서 베껴 쓴 필사본(『진대방전』, 『목충효전』, 『추풍감별곡』 등)과 전라도 남평에서 1897년(『별춘향전』)과 1899년(『박씨전』, 『민시영전』 등)에 필사된 국한 혼용(병기)본이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에 남아 있다.³¹⁾

29)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이윤석, 「고소설의 표기 방식」, 『고소설연구』 제3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371-403쪽;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등.

30) 한영균·유춘동, 「고소설의 서사방식 변화와 필사 시기 추정의 상관성에 대한 시론」, 『열상고전연구』 제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605-628쪽. 이 논문에서 영국 SOAS 대학에 광무 연호를 쓰는 1900-1910년 무렵에 필사한 국한혼용 필사본 고소설이 소장되어 있다고 언급했다.(623쪽) 그러나 정확한 필사 시기와 근거에 해당하는 작품명은 아직 소개되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국한 혼용(병기) 필사본 고소설의 존재는, 곧 그러한 표기의 소설을 실제로 향유하던 독자층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한 혼용문 고소설을 필사하고 향유한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20세기 초 문자사용과 그에 따른 향유층에 관해 쓴 신문 기사가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1906년 『황성신문』에 실린 「국문일정법의견서(國文一定法意見書)」란 글에서 글쓴이인 이능화는 한자에 한글을 부기하는 ‘한자측부서언문(漢字側附書諺文)’이 언문일치를 구현하는 방식임을 논하였다.³²⁾ 그러면서 당시 변별 가능한 독자층을 네 부류로 나눈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이능화는 당대 독자를 ① “純漢文 惟雅者讀”, ② “純國文 俗者讀”, ③ “今之 國漢文交用法 俗者仍不能讀”, ④ “漢字側附書諺文 雅俗共讀”로 대별했다.³³⁾ 이는 문자사용 정도에 따라 당대의 독자층을 변별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려 준다.

이능화는 독자를 ‘아자(雅者)’와 ‘속자(俗者)’로 나눴다. 그리고 순한문은 고상하고 우아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전유물(①)이고, 순국문은 일반인(속자)이 읽는 글(②)이라 보았다. 특히 국한문을 섞어 사용하는 당대의 글, 곧 ‘국한 혼용문’은 학식이나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은 읽기 어려운 글(③)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자 교양의 유무를 기준으로 독자를 변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한자 옆에 한글을 부서하는 글(漢字側附書諺文)”이 교양 있는 사람과 일반인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글(雅俗共讀)(④)이라는 설명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 해독 능력을 갖춘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국한 혼용 고소설

31) 정승혜, 「구한말 육군 통역 고이즈미 테이조(小泉貞造)의 한어(韓語) 학습 과정과 교재-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제37집, 국어사학회, 2023, 89-164쪽.; 『밀정의 공부』, 아트레이크, 2025, 69-192쪽.

32) 한영균, 『현대 한국어 형성기의 새 국한혼용문의 등장과 그 변진』, 소명출판, 2023, 73쪽.

33) 이능화, 「국문일정법의견서」, 『황성신문』 2615호-2616호. 1906.6.1.-6.2.

을 향유한 독자층은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자 소양을 갖춘 지식인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의 실제 필사 양상을 보면, 단순히 국한 혼용이라는 표기 방식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실험적인 표기 방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필사 시기에 따라 필사자와 향유층의 교양 수준이 달라졌음을 짐작케 한다. 19세기 후반의 국한 혼용 고소설 향유층과 1910~20년대 향유층과의 거리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정한 문자 해독 능력뿐 아니라, 특정한 문자사용 관습과 취향을 공유한 독서 집단 속에서 향유되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하버드대 소장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인 『정을선전』을 보면, 이두식 한자 구결(口訣)이 빈번한 사용되고³⁴⁾ 반자(半字) 사용³⁵⁾이 현저할 뿐 아니라, 때로는 순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음가의 한자로 바꿔 억지로 표기하거나 한자를 틀리게 적은 경우가 적지 않다.³⁶⁾ 여기에 더해 한글 형태를 파자화(破字化)하거나 ‘ㅅ름ㅓ’, ‘ㅎㅓ’처럼 기형적인 이체자(異體字)를 자주 표기한 것과 같이 필사 과정에서의 특수성이 현저하다.³⁷⁾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특수한 이체자 용례가 단국대 소장 국한 혼용 필사본 『정을선전』, 완판본문화관 소장 국한 혼용 필사본 『조웅전』 등 서로 다른 국한 혼용 필사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동일 필사자가 아닌데도 동일한 이체 방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근대전환기에 특정 향유 집단 내부에서 이러한 표기 방

34) “朕의 차이路라 ㅎ시고”(7b), “天下 容納之 못할 罪人을 이러타 寬待ㅎ시니”(19b) 등.

35) “皇命이 至ㅓㅓ하기로 天眼을 睞오니 天幸이로쇼이다”(7a) (至ㅓㅓ→至嚴) / “忽然 困ㅎ야 조으더니 非ㅓ間의 白髮老人이 불근 구실 세 介乙 쥬며 日”(19a) (非ㅓ→非夢 / 介乙→個乙) 등.

36) “丞相乙 모時故”(34a), “上이 손乙 잡고 可羅辭對”(20b), “對日 指我備로쇼이다”(14a), “丞相 私浪함을 못 이기여”(21a) 등.

37) “즈든 ㅅㅓ이 ㅅㅓ여”(19a), “네가 ㅅㅓ 이탄”(8a), “天子 ㅎ 해사”(34b) 등.

식이 공유되었거나 유행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한 필사상의 우연이라기보다 일정한 문자 미감과 취향을 공유한 집단적 표기 관습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표기 실험은 계층적·문화적 동질 의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기호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³⁸⁾

그렇다면 이런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을 향유한 이들을 누구로 볼 것인가? 역사적으로 국한 혼용문 사용을 전인한 주체 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향유층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각종 언해서의 독자였던 중하층 남성과 사대부가 여성 및 궁중 여성이다. 이들은 순한문 중심의 문자 질서에 균열을 가한 중요한 주체였다.

둘째, 아전·서리 등 중인층 출신의 실무 감각이 뛰어난 교양인이다. 한자를 사용하고 한문을 지을 수 있지만, 글쓰기에 있어 학문적 엄정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들이다. 이두식 구결과 부정확한 한자 표기의 빈번한 사용은 이들의 한문 교양 수준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한문에 일정한 소양을 갖추었으면서도 신식 교육을 통해 국한 혼용체 사용에 익숙해진 신흥 교양인이다. 비교적 정확한 한자 사용과 이체자 사용 빈도가 적은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을 향유한 독자층의 존재를 염두에 둘 수 있다.

넷째, 한국어를 학습하던 외국인, 특히 역관과 선교사를 들 수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던 외국인으로는 하버드대 소장 국한 혼용 고소설을 필사한, 앞서 언급한 일본인 통역관인 고이즈미 데이조[小泉貞造]가 대표

38) 여태명, 『조용전(한글 서예판본)』, 인사동문화, 2003, 3-12쪽. 서예가이자 ‘민체’ 연구자인 여태명은 글체를 관방체와 민체로 나누고, 관직자들이 사용하던 공식적인 글체와 민간에서 일반 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글꼴의 특징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체자를 민화, 민담처럼 서민들의 재기발랄하고 해학적인 요소가 담긴 글꼴로 보았다.

적이다. 토론토대학 토마스 피셔 희귀본 도서관 소장 게일 문서(Gale Papers)에 포함된 『숙영낭자전』, 『제마무전』, 『홍부전』, 『심청전』 등의 국한 혼용 필사본 역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게일(J. S. Gale) 선교사를 도왔던 한학자 이창직 등 3인이 국한 혼용 문체를 사용해 고소설 필사를 담당했다.³⁹⁾

외국인의 경우, 혼용보다 병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학습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한글 저본을 바탕으로 필사하면서 한자어를 병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원래 한문소설이었던 것을 국한 혼용으로 바꿔 표기한 것은 없다. 이처럼 근대전환기에 국한 혼용체와 필사본 고소설의 관계에 천착하는 일은 언어와 문체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체와 문학 장르와의 길항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 가지, 앞의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신지식인의 경우,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한문에 익숙했던 지식인들은 근대전환기에 신문 간행에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이유에서 국한혼용체와 순국문체를 구분해 신문에 선보였다. 이때 일반인 독자가 좋아하던 소설 장르는 국한혼용체나 순국문체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문학 작품의 표현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⁴⁰⁾ 하지만 한문 산문은 문학이 아닌 실용

39) 토론토대학 내 토마스 피셔 희귀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게일 문서(Gale Papers)에 여러 편의 국한혼용 필사본 고소설이 있다. 동일 필사자가 필사한 것은 『숙영낭자전』, 『제마무전』, 『홍부전』, 『심청전』이다. 이들은 모두 세로로 패선이 있는 일본산 기름종이에다 썼다. 종이를 만든 곳은 ‘大阪大村’이란 회사다. ‘大阪大村製(桃)’라고 매 페이지 하단 왼쪽 끝에 인쇄되어 있다. 또한 『홍부전』과 『심청전』에는 제임스 게일이란 서명과 함께 1913년에 적은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이 시기에 국한 혼용 필사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게일 소장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 중 『이해룡전』과 『장화홍련전』은 필체가 달라 다른 필사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40) 주승택, 「국한문 교체기의 언어생활과 문학 활동」, 『대동한문학』 제20집, 대동한문학회, 2004, 287-311쪽.

문에 국한해 사용되었다. 그 대신 국한 혼용체는 다른 문학 장르보다도 소설과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은 단순한 표기 방식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문학 장르와 문자 체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징검돌 역할을 했다. 특히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은 한문 중심 지식인의 독서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 소설 읽기가 지식인 독서의 아류나 변방이 아니라 교양인 독서의 중심 영역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능화가 학식이나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은 국한 혼용문을 읽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은 원전이 한문소설이었던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국문소설이었던 것을 국한 혼용 또는 병기 방식으로 다시 표기한 형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한 혼용 표기가 한문 독자를 국문소설 독자의 장으로 유입시키는 매개로 기능하였다는 단서로 대단히 소중하다. 다시 말해,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은 한글소설을 배척했던 순한문 지식인을 한글 소설 독자로 바꾸는 데(소설 독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매개적 텍스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한 혼용 표기는 띄어쓰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고 내용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과서, 신문, 잡지 등에서 띄어쓰기, 단락 구분, 구두점의 사용과 함께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국한 혼용문이 국문 문장으로 생활 속에 좀 더 쉽게 자리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비록 20세기 초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에서 띄어쓰기와 구두점 사용이 아직 충분한 규칙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와 어미를 한글로 표기하고 의미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국문 문장구조의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문자 혼용의 실천은 문자 생활의 변화가 특정한 제도적 계기를 통해 돌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의 생산과 향유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온 결과임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필사본이라는 전통적인 매체 형식과 국한 혼용이라는 문자 구성 방식이 결합된 형태는 전통적인 문자 생활의 연속성과 새로운 독서 환경의 형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책이 지닌 표기상 특징과 문자 구성 방식이 결합된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이야말로 근대전환기 독서 문화의 변화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이자, 책의 형태와 표기, 문자 구성 방식, 그리고 독서 환경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지점에서 형성된 독서 문화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5. 나오며

본 연구는 근대전환기에 형성된 독서 문화의 전변 양상을 ‘전유’에서 ‘공유’로 이행했다는 관점에서 그 실체를 통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각성이 잘 드러난다고 여긴 ‘국한 혼용’ 표기 방식과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것은 전통 계승과 근대 지식의 새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한 사례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세책 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제책과 장정, 시각적 구성과 같은 물질적 조건이 독자층의 범위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독서 문화의 변화 양상을 단순히 유통 구조의 변화로만 이해하기보다 텍스트의 물질적 구성 방식과 관련지어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

그 결과,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제도화된 국한 혼용문의 사용이 외재

적 요인에 의해 돌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언해서 간행을 비롯한 다양한 문자 혼용의 전통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온 문자 생활의 변화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시가 작품의 향유 과정에서 한문과 국문이 병기되는 구성 방식은 서로 다른 문자 체계에 익숙한 독자층을 동시에 포섭하기 위한 실천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문학 텍스트의 향유 방식 속에서도 문자 접근성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또한 한시 작품에 국문 표기가 병기되는 사례 역시 한문 중심 문학 향유 환경 속에서 국문이 이해 보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점차 독서 환경의 확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국한 혼용문은 특정 시기의 정책적 선택이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문자사용 관행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대전환기에 발달한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 역시 필사본이라는 전통적인 매체 형식과 국한 혼용이라는 문자 구성 방식이 결합된 형태 속에서 근대전환기에 전유가 아닌 공유의 독서 문화로의 변화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에 해당한다. 국한 혼용문은 근대에 갑자기 등장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전근대 문자 생활의 연속선상에서 형성된 과도기적 문자 체계이며,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 또한 이러한 문자 생활 재편이 실제 독서 현장에서 구현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대전환기에 사용된 국한 혼용체와 국한 혼용 필사본 고소설의 발달을 깊이 논구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 국한 혼용체 신문 연재 소설과 활자본 소설까지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연재 소설은 국한 혼용 필사본에서 활자본 소설로 이행하는 과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대개의 국한혼용체가 신문의 지배적인 문체로 바뀌던 상황에서 순국문체는 근대소설의 문체로 자리 잡고, 기독교에서도 성경을 순한글체로 바꿔 번역해 보급함으로써 문체 사용의 변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전변 상황에서 국한 혼용체 신문연재소설과 국한 혼

용 필사본 고소설이 선후 영향 관계를 따지기 어려울 만큼,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으며 향유되었다. 그 구체적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을 때, 근대 지식 재편의 실체를 더 선명히 드러내 보일 수 있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런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이덕무, 『士小節』, 婦儀 1.
채재공, 「女四書序」, 『樊巖集』 卷33.

2. 단행본

-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김진균, 『모던 한문학』, 학자원, 2015.
마셜 매클루언 저, W. 테런스 고든 편집,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박천홍, 『활자와 근대』, 너머북스, 2018.
여태명, 『조웅전(한글 서예판본)』, 인사동문화, 2003.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 관계 연구』, 역락, 2007.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엮음,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이윤석, 『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 과정』, 지식산업사, 2008.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정승혜, 『밀정의 공부』, 아트레이크, 2025.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 서지 데이터베이스』, 보고사, 2017.
한영균, 『현대 한국어 형성기의 새 국한혼용문의 등장과 그 변진』, 소명출판, 2023.

3. 논문

- 구사회 외, 「새로 발굴한 가사체 <춘향전>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제34집, 동양고전학회, 2009, 387-414쪽.
- 김무봉, 「조선시대의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2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373-418쪽.
- 김영민, 「근대계몽기 문체 연구」, 『동방학지』 제14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9, 391-428쪽.
- 김영민, 「근대 유학생 잡지의 문체와 한글체 소설의 형성 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제41집, 2010, 39-69쪽.
- 김주필, 「19世紀末 國漢文의 性格과 意味」, 『진단학보』 제103집, 진단학회, 2007, 193-218쪽.
- 노경희,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한국 한문학: 17세기 전반기 명 문단의 조선시선집 간행과 조선 한시에 대한 인식」,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33-63쪽.
- _____, 「고문헌 자료의 형태서지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물질성의 디지털화와 인문학적 해석」, 『한국문화』 제97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451-477쪽.
- _____, 「<훈민정음(언해본)> 필사본의 서지학적 연구」, 『국어사연구』 제39집, 국어사학회, 2024, 49-80쪽.
- 박소현, 「과도기의 형식과 근대성-근대계몽기 신문연재소설 <신단공안>과 형식의 계보학」, 『중국문학』 제63집, 125-147쪽.
- 서경석, 「한국 근대소설을 통해 본 한국어 문체의 생성과 분기」, 『우리말글』 제95집, 우리말글학회, 2022, 393-413쪽.
- 안대회, 「조선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제24집, 2006, 203-232쪽.
- 안상원, 「책 미디어의 발전과 독서 문화의 변화」, 『인문과학』 제47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1, 227-254쪽.
- 유경민, 「국한 혼용문 성경의 정착 과정」, 『국어사연구』 제13집, 국어사

- 학회, 2011, 267-305쪽.
- _____, 「국한 혼용문 성경과 현대 한국어 문체의 상관성」, 『반교어문 연구』 제38집, 2014, 163-194쪽.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64집, 민족문화연구원, 2014, 283-309쪽.
- 이기대, 「고전소설 낭독의 관련 기록과 현재적 전승 양상」, 『어문연구』 제79집, 어문연구학회, 2014, 277-307쪽.
- _____, 「독서의 전통적 방법과 낭독의 효과」, 『한국학연구』 제70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9, 105-131쪽.
- 이민희, 「하버드대 소장 국한문혼용 필사본 <정을선전(鄭乙善傳)>의 표기상 특징 연구」, 『어문학』 제159집, 한국어문학회, 2023, 141-178쪽.
- _____, 「<남원고사>의 형태서지학적 특징과 독자층 연구」, 『어문논집』 제104집, 민족어문학회, 2025, 97-130쪽.
- 이윤석, 「고소설의 표기 방식」, 『고소설연구』 제3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371-403쪽.
- 전민호, 「개화기 교육수단으로서의 국문 및 국한문혼용 정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34권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2, 99-121쪽.
- 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 제2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8, 361-396쪽.
- 정명기, 「세책본 소설의 유통양상-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소설에 나타난 세책 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3-100쪽.
-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100집, 진단학회, 2005, 263-297쪽.
- 정승혜, 「朝鮮通事가 남긴 대마도의 한글 편지에 대하여」, 『어문논집』

- 제65집, 민족어문학회, 2012, 219-250쪽.
- _____, 「구한말 육군 통역 고이즈미 데이조[小泉貞造]의 한어(韓語) 학습 과정과 교재-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제37집, 국어사학회, 2023, 89-164쪽.
- 정은영, 「새 자료 필사본 <십현담요해(언해)>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56집, 구결학회, 2026, 259-290쪽.
-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현토소설의 존재방식-신문연재소설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제24집, 183-208쪽.
- 주승택, 「구한문 교체기의 언어생활과 문학 활동」, 『대동한문학』 제20집, 대동한문학회, 2004, 287-311쪽.
-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제27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201-229쪽.
- 한영균, 「근대계몽기 국한 혼용문의 유형, 문체 특성, 사용 양상」, 『구결연구』 제30집, 구결학회, 2013, 219-256쪽.
- _____,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설정과 하위 구분-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사의 관점에서」,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 제70집, 2015, 63-108쪽.
- 한영균·유춘동, 「고소설의 서사방식 변화와 필사 시기 추정의 상관성에 대한 시론」, 『열상고전연구』 제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605-628쪽.
- 황문환,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제10집, 국어사학회, 2010, 73-131쪽.

<Abstract>

From Exclusive Possession to Shared Access* :
Focusing on Mixed Script Texts and the Reorganization of
Literacy Practices in Korea's Transitional Modern Period

Lee, Min-Heui**

This study re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reading culture in Korea's transitional modern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a shift 'from exclusive possession to shared access', focusing on the materiality of books and the reorganization of literacy practices.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explained this transformation in terms of the expansion of print media and the emergence of modern publishing and distribution system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such changes were already taking shape within the internal development of mixed-script writing practices and the material conditions of manuscript culture.

By examining rental novels and mixed-script manuscript fic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material features such as binding, layout, and visual arrangement provide important evidence for identifying readership and reading environments. It further argues that mixed-script writing did not emerge abruptly after the Gabo Reform, but rather developed gradually out of earlier traditions of script-mixing found in annotated texts, verse collections, and epistolary material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rand Series of Korean Studies Progra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4-KSS-1120013)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particular, mixed-script manuscript fiction represents a significant site where traditional manuscript media and mixed-script writing practices intersect, revealing how transformations in literacy practices were realized within actual reading environments. From this perspective, the transition from exclusive to shared reading culture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consequence of print expansion, but as part of a broader process involving the materiality of books and the restructuring of literacy practices in the transitional modern period.

Key Words: Transitional Modern Period, Reading Culture
Transformation, Mixed-Script Manuscripts, Literacy
Practices, From Exclusive to Shared Reading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6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6일